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연중 제31주일
제31권 49호(가해) 2011-10-30

[묵상]



학자들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16c, 베르나르디노 루이니, 런던 내셔널갤러리>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이가 다 실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들의 평가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만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라
오해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저희 모두는 형제이고 학생일 뿐입니다.
같은 학생끼리의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선생님의 평가만이 올바르고 유효합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트레아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산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호예 안젤라, 권순봉 요안나
	(생)유지숙 그레이스 & 제르미 마티네스, 우경석 사도요한
주 일 낮 미사	(연)학생미사: 장삼례 & 이원길, 이상범 다윗, 박종운 안토니오
	11시미사: 오진 베드로, 한병열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박경순 안나, 엄익찬 안토니오, 신태동 요아킴, 낙태된 영혼들, 박정이, 윤혜순
	(생)학생미사: 황인종 성실 & 박명순 안나, 황마리, 해 리, 예리, 재원, 성원
	11시미사: 김리디아, 김영길 안드레아, 김다니엘, 백삼위ME부부들,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Malachi) 1,14-2,8-10

화답송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배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 2독서 테살로니카 1서(1 Thessalonians) 2,7-9.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복음 마태오(Matthew) 23,1-12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4	196	176
봉헌	255	269	231
성체	302	291	284
파견	190	249	33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말씀의 유비

교부들은 올바르게도 말씀의 교향곡, 곧 수많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유일한 말씀을 “수많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부르는 하나의 찬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주교 대의 원 회의 교부들은, 하느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인간의 언어가 유비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상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알려 주시는 것을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적 숙고의 관점에서나 사목적 사용의 관점에서나 주의 깊게 고찰하고 서로 관련지어야 할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 서문이 분명하게 보여 주듯이 ‘로고스’는 본래 영원하신 말씀을, 곧 모든 시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태어나시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신 외아드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 성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요한 1,14)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본질을 취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로써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하느님 계시의 중심에 있다면 창조 그 자체, 자연이라는 책(liber naturae)이 여러 목소리로 부르는, 유일한 말씀이 표현되는 이 교향곡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당신 말씀을 말씀하셨고, 당신 목소리를 들려 주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구원 역사 전체에서 표현되며 하느님 아드님의 육화와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서 충만함에 이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16,15)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은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을 통하여 전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언되고 신적으로 감도된 하느님 말씀이 성경, 곧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책의 종교”가 아님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크게 공경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록되고 소리없는 말이 아닌, 강생하시고 살아 계신 말씀”의 종교, “하느님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속>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상영되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이나 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교장과 교사가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한 끔찍한 이 사건은 성폭행 자체에 대한 충격을 넘어 참된 스승의 부재 때문에 더 실망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초점이 참 스승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스승이 오히려 학생들을 개인의 사욕과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많은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 스승은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말로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하였고 소경임에도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서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스스로 높이지만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 신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서 있지만, 하느님과 나 자신의 양심 앞에

서는 오늘 복음의 율법학자들처럼 스승으로 서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스승은 누구이며 어디에 계시까요? 참된 스승은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며 그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참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우리에게는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참 스승이십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스승, 선생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체화하여 스승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천상 스승의 배움터인 성체 앞에 머물러 참 스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아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스승이신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있습니다. “너는 나를 닮은 참 제자로다...”

◆안성철 마조리노신부/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엄영숙 마리아	신덕례 테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권오상 바오로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권순길 제칠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자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모든성인 대축일 미사 :
1일(화) 오후 7시30분

- ◆성시간 : 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토런스 동구역
- ◆병자 영성체 : 4일(금) 오전 10시부터
- ◆성모신심 미사 : 5일(토) 오전 8시30분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2일(토) 오후 2시(1시30분까지 도착 요망)
 - 장소 : Holy Cross Cemetery(컬버시티)
- ◆제30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일시 : 11월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통버치)

◆예비자 환영식

- 환영식 : 오늘주일(30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960

◆본당 ME 모임 및 사제의 날 행사

- 일시 : 오늘 주일(30일) 오후 6시, 장소 : 친교장
- 내용 : 특히 ME가 제정한 사제의 날 행사를 겸한 것으로 ME주말을 다녀오신 부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

- 일시 : 29/30일(토요특전, 주일미사)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제2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 일시 : 11월6일(주일) 오후 1시30분, 농구장
- 대상 : 양업회, 성모회, 대진회, 자모회, 원서회(남,여), 배론청년회(남, 여), 주일학교교사회(남, 여)

- 경기방식 : 단체별 남녀 각각 한팀씩 총8팀 구성후 남성, 여성경기로 리그전 진행 *참가비 : \$50(단체)
- 상금 : 우승팀 \$150및 트로피, 준우승팀 \$50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경비 : \$1,000(1인당 하루팀 \$10 별도)
 - 인원 : 본당신자 선착순 40명
 - 신청 : 오늘주일(30일)~11월13일(주일)까지, 신청금 \$100
 - 문의 : 금영도 배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2011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9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사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토요특전(청년미사) 청년밴드부 모집

- 자격 : 신앙 깊은 청년 반주자(악기, 보컬)
- 문의:곽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11월5일(토) 오후 5시30분부터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남가주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본당 배론청년회에서도 선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룹니다. 기도중에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전신자 친구약 통독 11월/12월 강의시간 안내

-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1월부터 시작한 전신자 성경통독 공부에 어느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성경읽기표를 꼼꼼히 챙겨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다음은 강의스케줄 안내-
- 11월 : 첫목요일(3일)/넷째목요일(24일 추수감사절) 휴강
 - 12월 : 첫목요일(1일) 휴강 * **종강 : 12월15일(목)**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30일(주일) : 토런스 남2,3반(콩나물밥 \$3)
- 11월6일(주일) : 성모회(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점심나누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권오상 김민석 김성현 김영길 김우용 김충섭 김풍길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배기엽 신정훈 오명섭 오세원 유근태 유선식 유영균 육근주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이소연 임 순 장춘수 정규숙 정열모 정혜영 조소영 최현찬 한혜숙 홍석인 황인중 황지영
미사헌금 : \$2,838	합계 : \$3,945

성전헌금	강태홍 권오상 김민석 김영길 김우용 김충섭 김풍길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배기엽 신정훈 오세원 유근태 유선식 유영균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임 순 장춘수 정규숙 정열모 정혜영 최현찬 한혜숙 홍석인 황인중 황지영
감사헌금 : 배난군	합계 : \$2,625

공지사항

◆ 전진반 학부모와의 만남

- 전진반 : 오늘 주일(30일) 오전 10시30분 10학년교실
- 대상 : 10학년 학부모
- 지도 : 문갑티스타 수녀
- 문의 : 신동윤 빈셀트 교사 ☎(213)500-9448

◆ 매달 첫째주일 학생영어미사 1.5세 한인신부님 집전

- 시작 : 11월6일 오전 9시30분 미사
- 사제 : Fr. 리처드 선우(소속본당 St. Lawrence)
- 셋째주일은 중전대로 St.마가렛매리 본당 신부님 오심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11월12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
- 주제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20(티셔츠, 점심 포함)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대림 제1주일부터 영어미사(학생미사) 경본이 바뀝니다.

오는 11월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북미주 모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정판 영어미사경본을 사용합니다. 한영 매일미사 11월호는 이미 바뀐 영어미사경본(주일미사)으로 출판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배태임 안나 961-0942 11/11(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1/5(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심재은 클레멘스 213-760-7766 11/12(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순자 안젤라 201-320-9930 11/10(월)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탐 마르시아 634-6923	합동 반모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위너 스프링 온천 895-8624 11/19-20(토~일)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파리아 985-2882	김금자 테레사 539-9526 1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866-8778 11/1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문중 바오로 796-6763 11/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박진숙 엘리사벳 562-860-8499 11/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11월)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본당신부님영명축일축하식	낮미사 후 천교장
--------------	-----------

남미주 소식

◆ 장애인 후원을 위한 작은 예수회 '1일 점심·차' 행사

- 일시 : 11월5일(첫토) 낮 12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후버)
- 미사 : 낮 12시에 장애인 및 후원회 가정을 위한 봉헌
- 문의 : 윤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제7차 만남의 장

- 일시 : 11월13일(주일) 오후 5시 *장소: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chungsilhongsil@gmail.com

◆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 기념미사

- 일시 : 11월19일(토) 오전 11시
- 성당장소 : 2035 Otterbein Av. Rowland Heights, CA 91748
- 이번에 시로 탄생한 성 가브리엘 성당은 기존의 성 크리스토퍼성당과 성 마리아성당이 합병한 공동체입니다.
- 주임신부: 한상만 토마스 *문의:(626)965-7553 사목회장

구인 : Paramounttariff.com(사무직,풀타임/파트타임)

FMC.gov규정에 따른 세계유수의 회사임

* 자격 :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권/영주권자

* 이력서 e-mail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외십자가의 길(14처) 봉헌 내역 보고서

본당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야외십자가의 길'이 이제 '백삼위 한인성당'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모동산 앞에 조성된 14처를 돌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사랑의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갑시다.

♥ 단체봉헌(각 \$2,000) : \$29,210

요셉회, 대건회, 올트레아, 토런스남구역, PV구역, 자모회/주일학교/한국학교, 토런스동구역, 토런스북구역, 성모회, '천상의어머니'꾸리아, 양업회, 토런스서구역 (\$2,200), 하버/카슨구역, 안나회, 연령회(\$1,010)

♥ 개인봉헌(각\$2,000) : \$30,000

고천용&고규재 체칠리아, 김대우 비오&김숙희 심포로사, 김병조 마틴&박지연 요안나, 김진엽 마리아&김순자 헬레나, 배경락 다니엘&김미성 에스텔, 사제관, 서병교 라파엘&서혜경 세라피나, 성낙호 요셉&성은혜 실비아, 오진희 아네스&오현희 골롬바, 이경용 야고보&이윤조 글라라, 이병권 파비아노&이도순 요안나, 이병우 마리오&이정자 아네스, 이재용 안드레아가족, 정동호 하삼바오로&정병옥 올리아, 최수복 클라라&호경진 테레사

♥ 소액 개인봉헌 : \$2,300

김경순 루실라, 익명, 석순영 아네스, 송종두요한, 주용범 아브라함&주이자 테레사, 채미정 카타리나, 최등미자 벨라멧다(박제이콕)

♥ 종합예술대전후 기부금 : \$620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총수입 : \$62,130.00

총지출 : \$50,437.81(아래 지출내역 참조)

Balance : \$11,692.19

◆작성 : 2011.10.30

백삼위 한인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장 이재정 사도요한

14처 공사 지출 내역

내용	공사담당	공사기간	비용
1 14처동판	루카 아트(한국)	6/10-7/10/2011	\$12,550.00
2 인조바위	김성일 다미아노	8/15-8/31/2011	\$15,000.00
3 나무 & 조경	Plant City&Nursery*	9/1-9/9/2011	\$16,450.00
4 팜트리**	John's Landscaping	9/3-9/9/2011 (심기작업; Folklift 임대비용	\$1,900.00 \$300)
5 전기시설	본당 시설관리부	9/3-9/9/2011 (성전안 14처 이동&설치)	\$2,709.92
6 봉헌 동판	올림픽 트로피	9/6-9/14/2011	\$300.00
7 성모동산 벤치	김성일 다미아노	9/16-9/25/2011	\$1,000.00
8 태양열 램프	홈디포에서 구입	9/17/2011	\$227.89

총지출 : \$50,437.81

Balance : \$11,692.19

* Plant City 에서 구입한 나무들은 1년간 Warranty 있음

** 팜트리 : 나무값(그루당 \$500x19) \$9,500과 운송비용 \$800은 포함안됨(기증받았습니다.)